

광주 제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뽑는다

5일~25일 현장·온라인 투표
9~18세 정당비례대표 방식
8개 정당 출사표...23명 선출

광주시는 제3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를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만 18세 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며,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중 1인 1회 선택투표 방식으로 총 23명을 선출한다.

현장투표는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초·중·고등학교에서 교내투표와 기관 방문 투표 등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광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진행되며, 온라인 투표는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온라인시스템(0919vote.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선거는 정당정치를 통해 집권하는 원리로, 인물선거가 아닌 정책공약으로 투표하는 비례대표 방식이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의 비

례대표가 의석수를 배분하게 되는데, 정당 비례대표 후보와 순위는 각 정당별로 정책발의에 힘쓴 당원이 후보로 선정됐다. 지난 10월12일까지 어린이·청소년의회 입후보 등록을 마친 결과, 8개 정당(무드림당, 올리고당, 여기청소년있당, 사람답게살고싶당, 모꼬지당, 청년의당, 해움당, 청소년도진보한당)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3일에는 '내 생애 첫투표' 1차 사전투표가 광주청소년독립페스티벌(5·18 민

주광장) 현장에서 실시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미리 투표권을 행사해보는 기회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청소년의회사무국(062-226-0118)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다잇다(http://daitda.or.kr)의 선거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 '안전광주훈련'

광주시는 지난 2일 시청에서 '안전광주훈련'의 하나로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구조훈련은 시청사가 정전되면서 정중제 행정부시장 등 시민 5명이 승강기에 갇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유관기관이 비상조치를 하는 등 실전처럼 진행됐다. 안전모니터봉사단과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도 참가, 승강기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현재 광주시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1만9807대이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승강기 인명사고는 사망 1

명, 중상 9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 237명, 중상 1066명, 경상 506명 등 총 1809명이 발생했다. 사고원인으로는 전국 1400건의 사고 중에서 이용자 과실이 8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보수부실 등 관리주체 잘못 3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승강기 설치 증가, 관리 부실, 이용객 부주의 등의 이유로 승강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며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주체별로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하철역 가을국화 포토존 광주시시설도공사(사장 김성호)는 광주시 동구 소태역과 광산구 평동역에 가을국화 포토존을 설치, 지하철역에 가을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공사는 문화전당과 공동으로 'ACC 테마열차'를 운행하고, (사)한국연극협회 광주시지회와 문화전당역에 '광주국제평화연극제' 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지하철 이용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남구 효덕동 '공동체 우수사례 한마당' 대상

'협치마을 네트워크' 호평

광주시 남구 효덕동이 지난달 31일 경북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한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공동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와 함께 개최한 것으로, 효덕동 협치마을 네트워크는 17개 시도 우수사례 발표 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효덕동 협치마을 네트워크는 광주시가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모델로 육성하고 있는 9개의 협치마을 중 하나다. 노대송화마을을 중심으로 효덕동 주민자치위원회, 노대동주민협의회, 작은도서관 등 16개 단체와 공동체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을회의에서 마을 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효덕동은 2007년 택지개발과 아파트 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입주 계층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뒷밭가꾸기, 작거래장터 등 소규모 마을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마을축제, 마을신문, 커뮤니티 공간 '소통방'을 통해 소통하며 스스로 해결해가는 마을의 변화과정을 소개했다. 또 10년간의 마을활동으로 조성된 작은도서관 7곳과 학교, 주민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남구 마을공동체협력센터, 효덕동행정복지센터 등 민관 조직이 네트워크 관계망을 구성해 마을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는 주민이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 내 다양한 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을 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치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40여명 광주비엔날레·가사문화권 등 문화탐방

광주시는 지난 3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 하반기 첫 '남도문화탐방'을 실시했다. '남도문화탐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융화프로그램의 하나로 2006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89회 진행됐으며 4500여 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2회에 걸쳐 80여 명이 남도문화를 살펴봤다. 하반기 첫 탐방은 문화관광, 힐링, 체험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지역대표 문화행사인 '2018 광주비엔날레'를 관람하고 역사와 자연이 함께하는 힐링 공간 '가사문화권'과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등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가족 소통과 화합을 위한 '도자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10일과 24일에는 한전 등

10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80여 명과 함께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프리지페스티벌, 2018 김장대전 등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남도문화탐방을 실시한다. 시는 하반기 탐방에 앞서 상반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희망 탐방 장소와 프로그램을 분석·반영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된 교통, 교육, 환경, 문화 등 42개 건의사항 가운데 38건을 처리하며 정주여건 개선 인프라 개선에도 적극 나서왔다. 이 밖에 도 남도문화탐방과 병행하여 광주시와 빛가람 혁신도시 간 상호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대학생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를 위해 11월 1일부터 '지역 대학생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탐방'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10월의 공무원' 김민경 주무관 선정

광주시는 '10월의 공무원'으로 광주시청 건강정책과 김민경 주무관(사진)을 선정해 지난 1일 열린 11월 정례조례회에서 시상했다. 김 주무관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지난 2016년 1월부터 담당하며 시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 중요성이 부각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교육, 유관기관 합동 훈련 내실화, 전국 최초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 내 유치, 음압치료병상 확충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과 증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보에도



적극 노력했다. 김 주무관은 역학조사관 전문교육 등을 이수하고 현재 감염병 관리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임명돼 업무의 전문성을 더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김 주무관은 수상 소감을 통해 "감염병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지역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교육

6·7일 전남대 광주은행홀

광주시는 6일부터 이틀간 전남대 용지관 광주은행홀에서 광주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대가 공동 주관한 이번 교육은 유럽의 과학기술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전문인력을 초빙해 독일의 스마트팩토리 추진 현황과 구축 사례 등을 전달한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팩토리 구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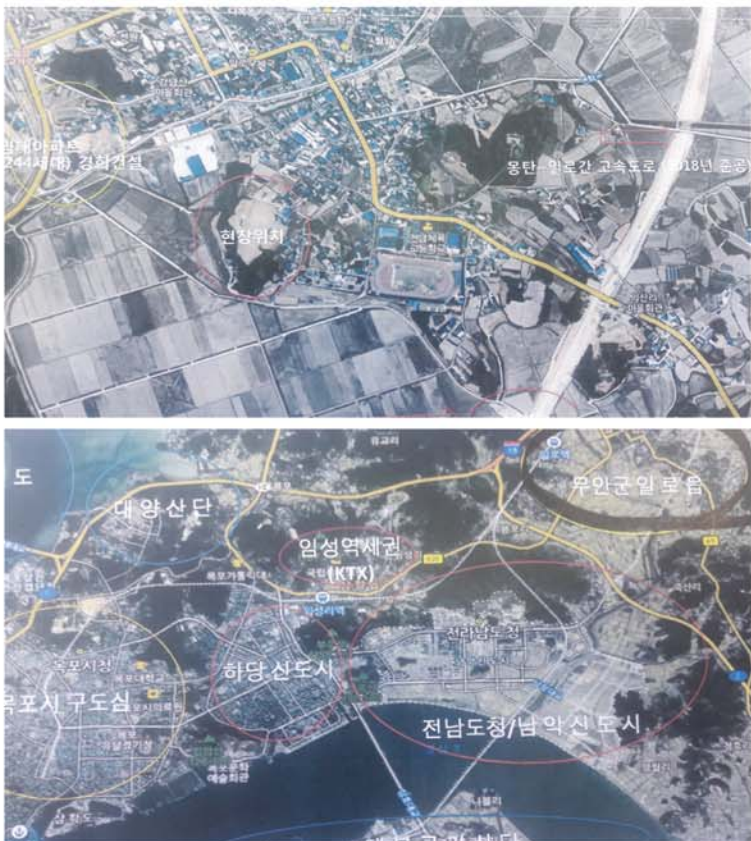
로드맵 제시, 독일의 인터스트리 4.0 등으로 진행되며, 교육과정 중 별도의 워크숍을 통해 기업 유형, 스마트팩토리 도입 현황 등 분석에 대한 전문가 코칭 등도 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소제조 현장에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생산 시스템 혁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기업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상황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립산수도서관 21일 송동훈 탐험가 특별강연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8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이번 강연은 '송동훈 문명 탐험가가 들려주는 배움·상상·영혼이 있는 여행 그랜드투어'로, 오는 21일 오후 6시부터 산수도서관 5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송씨는 4년 가량 역사와 문화를 배우

기 위해 떠나는 긴 여행 '그랜드투어'를 이야기하며, 여행을 통한 배움과 변화와 성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가자는 오는 6일부터 시립산수도서관에 방문 또는 전화(613-7814)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citylib.gwangju.kr) 열린마당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일로 월암리, 전원주택부지 급매



- ✓ 전남 무안군 월암리 62-12, 15, 16번지
- ✓ 임야 6000평, 도시지역 10M 도로접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
- ✓ 토목공사 완료, 전원주택지 최고(40채 가능)
- ✓ 남악신도시 5분, 목포 10분, 광주 40분거리
- ✓ 남악신도시 방향 4차선 도로
- ✓ 시세 - 42억(평당 70만원)
- ✓ 급매 - 30억(일시불)
- 문의. 010-6834-7400